

도시과학대학

# 도시공학과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스마트)도시를 선도하는 창의 인재의 교육 및 양성을 목표로 공간빅데이터 기반의 도시계획, 도시설계,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 리질리언스 등 도시생애주기 전반의 직무를 공학적 접근(스마트기술기반 공간 정보, 도시생태 및 친환경 도시공간 계획 및 설계, 첨단교통, 도시안전 및 유지관리 등)과 인문 사회적 접근(주거정책 및 도시경제, 도시문화, 인문지리, 탄소중립 등)을 연계, 융합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미래도시를 위한 통합 교육·연구 시스템을 개발 교육하고 있다.

당면한 도시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함에 있어 산·학·연·관을 연계하는 집적된 지식의 융합 과정을 통한 학습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에 능숙한 도시공학 인력을 배출하고 이와 더불어 미래도시의 패러다임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가상현실, IoT 등의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도시계획, 스마트교통, 지속가능하고 시마트한 도시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을 개발/축적/교육함으로써 오늘날 도시가 안고 있는 사회, 경제, 교통, 환경, 지속가능성 그리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학제적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우리 도시공학과에서는 도시문제의 진단은 물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도시 문제를 예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직무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스마트 도시 공간 구성을 위해 각 교수별 특화 세부전공트랙을 개발하여 전문지식을 교육하며 트랙 간 융합교육을 병행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스마트 도시공학 인재 양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도시과학대학

# 도시공학과


**교육  
목표**

- 도시계획·도시설계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 교통공학 분석과 교통계획을 통해 도시 이동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전문가 양성
- 토목공학적 기초지식을 기반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측량·설계·관리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 도시·교통·토목 분야를 융합하여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융합형 인재 양성


**트랙  
소개**

트랙	주임교수	소개
도시 및 부동산분야	한소영 엄현주 권기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이론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 구조와 토지이용 체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한다.</li> <li>• 도시재생, 주거정책,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도시 이슈에 대한 분석 역량과 정책적 사고를 함양한다.</li> <li>•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도시계획 및 공간 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li> <li>• 부동산 시장 분석과 도시개발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사업, 주택정책, 부동산 금융 및 공공·민간 개발을 연계하여 도시공학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부동산 활용 및 개발 전략을 도출하는 역량을 함양한다.</li> </ul>
도시교통분야	윤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공학 및 교통계획 이론을 기반으로 도시 교통체계의 운영 원리와 수요 특성을 이해한다.</li> <li>• 교통수요 분석, 교통시뮬레이션, 대중교통 및 교통안전 분야의 분석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한다.</li> <li>• 도시 이동성 향상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교통정책 및 계획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함양한다.</li> </ul>
토목 및 안전분야	이용창 박승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목공학 기초 이론을 토대로 측량, 도시 기반시설의 계획·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전반을 이해한다.</li> <li>• 도로, 구조물 등 도시 인프라의 기술적 특성과 공공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 능력을 기른다.</li> <li>•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도시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 역량을 통해 실무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li> </ul>

## ❖ 진로

### • 도시분야:

도시계획·도시재생·주거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연구기관, 설계·건설링 회사 등에서 도시 정책 수립 및 공간계획 전문가로 진출

### • 교통분야:

교통계획·교통공학·대중교통 운영 및 교통안전 분야에서 공공기관, 연구기관, 경찰공무원, 엔지니어링 회사 등을 통해 교통체계 분석 및 계획 전문가로 활동

### • 토목분야:

도로·철도·상하수, 측량 등 도시 기반시설 분야에서 공공기관, 공기업, 토목직공무원, 건설·엔지니어링 회사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 계획·설계·관리 전문가로 진출



## ❖ 자격증

- 기사: 도시계획기사, 교통기사, 토목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지적기사, 콘크리트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도로교통감정평가사, 조경기사 등
- 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교통기술사, 도로및공항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조경기술사

## ❖ 비교과 활동

- 도시공학전문인력 양성 동아리: 도시 문제를 해결할 실무 역량과 창의적 공학 능력을 갖춘 도시공학 전문가를 양성
- 도시공간정보 동아리: 도시 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도시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공간정보 전문가를 양성
- 도시디자인 양성 동아리: 사람 중심의 도시 공간을 창의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양성


**1 학년**

	도시 및 부동산분야	도시교통분야	토목 및 안전분야
공동 핵심	자기설계세미나1, 대학수학, 물리1, GIS활용기초, 현대도시의이해		
심화	도시형태및역사 사회조사방법론 도시계획개론		비즈니스설계 CAD기초

**2 학년**

핵심	기초확률및통계 도시토지이용계획 GIS활용응용		도시공간정보기초 기초지역학 도시구조역학1
심화	단지계획스튜디오 오픈스페이스계획스튜디오 도시경제학	교통공학개론 도로계획및교통설계	도시공간환경조사1

**3 학년**

핵심	도시설계스튜디오 주택정책론	스마트도시교통론 교통용량시스템분석	도시공간모델링및설계
심화	도시공간불평등 도시계획이론	교통계획이론	도시공간환경조사2 도시구조역학2 AutoCAD(3D)

**4 학년**

심화	도시사회학 스마트시티와미래도시공간 도시연구방법론 도시빅데이터분석 도시재생	도로교통안전공학 지능형교통체계및설계	UAV기반도시생애주기실무 공간정보및메타버스 창의융합공학
----	--	------------------------	--------------------------------------

**관련전공**

전공명	도시계획학과 건축학과 조경학과 도시환경공학과	교통공학과 도시교통공학과	측지정보공학 공간정보학과 토목공학과 지리정보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과목명	도시계획사 도시지리학 경관계획및실습 공원녹지계획 도시데이터와공간분석 도시계량분석 지속가능한도시개발 등	도로공학 지속가능교통환경계획 첨단도시교통체계 교통수요예측 기초교통류이론 등	측량공학, 측지학 응용측량, 지적학 BigData 지사시설물탐사 공간정보학, 구조역학 재료역학, 응용역학 강구조역학, 교량공학 철근콘크리트역학 등

**석사·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공학대학원		
전공명	도시건설공학과(일반대학원 석사), 도시융·복합학과(일반대학원_박사) 도시공학전공(공학대학원)		

**취업기업**

동문선배 취업기업 ▼

LX(한국토지정보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및 지자체 공무원, 교통공사, 도시공사,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건설회사), 창업 및 벤처

트랙  
교과목



스마트 도시설계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계획

1 학년

공통 핵심	자기설계세미나, 대학수학, 물리, GIS활용기초, 도시와환경	
심화	도시계획개론	

2 학년

핵심		GIS활용응용 도시토지이용계획
심화	단기계획스튜디오 오픈스페이스계획스튜디오	

3 학년

핵심	도시설계스튜디오 I II	
심화		도시지리학 도시계획이론

4 학년

심화	도시사회학	스마트시티와미래도시공간 도시연구방법론
----	-------	-------------------------

관련전공

전공명	도시계획학과 건축학과 조경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환경공학과 공간정보학과
과목명	도시계획사 도시지리학 여가및휴양지계획 지속가능한마을만들기 경관계획및실습 공원녹지계획	도시계획 도시데이터와공간분석 도시계량분석 스마트시티와디지털전환 지속가능한도시개발 도시재난관리

석사·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공학대학원	
전공명	도시건설공학과(일반대학원_석사), 도시융·복합학과(일반대학원_박사) 도시공학전공(공학대학원)	

취업기업

동문선배 취업기업 ▼

LX(한국국토정보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및 지자체 공무원, 교통공사, 도시공사,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건설회사), 창업 및 벤처

## 주요 진출 현황 : 워크넷

워크넷



## 주요 진출 현황 : 기업 및 직무

인천교통공사  
직무소개



### 주요진출분야



- 기업체 : 도시 및 지역계획, 국토계획, 교통 관련 엔지니어링회사, 도시설계·단지계획·주택지 설계회사
- 정부 및 공공기관 :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철도청, 해양항만청, 국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도시개발공사

### 진출직업

- 공학기술직 : 교통영향평가원, 녹색건축전문가, 도시재생전문가, 지리정보시스템전문가
- 사무 : 감정평가사, 공무원(도시계획직)
- 연구/개발 : 교통계획 및 설계가, 공학계열교수, 도시계획 및 설계가, 지능형교통시스템(ITS)연구원, 측량및지리정보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http://www.work.go.kr)) → 직업진로 → 학과정보 → 도시공학과

### 주요 진출 기업 및 직무 정보 안내

- 도화엔지니어링(<https://dohwa.recruiter.co.kr>) → 채용정보 → 직무소개
- 인천교통공사(<https://www.ict.or.kr>) → 알림마당 → 채용정보 → 채용공고
- 한라그룹(<https://www.hlcompany.com>) → 커리어 → 채용정보
- LX한국국토정보공사(<http://www.lx.or.kr>) → LX → 채용정보 → 채용 안내
- 현대건설(<http://www.hdec.kr>) → 인재채용 → 직무소개
- GS건설(<http://www.gsenc.com>) → 인재채용 → 직무소개
- 대림산업(<https://www.daelim.co.kr>) → 인재채용 → 직무소개
- SK에코플랜트(<https://skecoplant.recruiter.co.kr/>) → 부서 및 직무소개
- 대우건설(<https://recruit.daewoenc.com>) → 입사지원 → 직무소개

### 인천교통공사 직무소개 - 토목



#### [주요사업]

- 도시철도 건설·운영 및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도시철도시스템 구축 등 도시철도 운영관련 사업 및 감리
- 각종 부대시설의 임대 및 운영관리
-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 등의 건설 및 관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주요 진출 현황  
: 기업 및 직무

**[직무소개]**

선로 및 구조물, 토목 분야의 전문지식과 철도시설 유지관리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선로시설물 및 구조물을 유지/보수하는 업무 수행

**[필요지식]**

- **(철도선로 시설물 유지보수)** 궤도/선로구조물의 특성 및 유지관리 기준에 대한 이해, 선로보수 공정 및 작업 지식, 궤도 인력 검측 및 재료점검 방법, 작업에 필요한 공기구 선정, 도면 작성방법, 선로 주변 시설물 점검 지식 등 선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지식과 토목 관련 공학(교량일반, 터널일반, 토질기초, 철근콘크리트, 강구조, 수리기초, 측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궤도 인력검측(궤간, 줄맞춤, 면맞춤, 수평, 분기기, 유간) 방법, 점검 종류에 따른 실시주기 및 방법
- **(토목 구조물 사업관리)**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점검항목에 대한 지식, 대상 공정별 준공도면·설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식, 대상 구조물 또는 설비/장비에 대한 점검항목 지식, 도면 작성 기준에 대한 지식, 시방, 공사공법에 대한 기본 지식,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등

**[필요기술]**

- **(철도선로 시설물 유지보수)** 선로보수 작업 순서와 공정 숙지 및 활용 능력, 안전한 작업 수행 및 교육 전파 능력, 철도시설물과 선로의 점검/유지보수/관리 시행, 궤도 인력 검측 및 재료점검 기술, 궤도 보수 및 선로정비 능력, 선로주변 시설물 점검 능력, 구조물 점검 및 안전진단능력, 각종 측량 장비 활용 기술, 토공 구조물·터널·교량 등 점검 및 점검보고서 작성능력, 소형 장비(레이저총기, 레일절단기, 레일삭정기) 사용 능력 등
- **(토목 구조물 사업관리)** 현장조사계획 작성능력, 결함사항 발생시 공정별 대책방안 수립능력, 설계도 정합성 검토 기술 등

**[모집단위]**

‘인천’과 ‘전국’ 단위로 구분하여 응모

**[채용절차]**

서류접수 → 필기전형 → 인성검사 → 면접전형 → 수습임용



주요 진출 현황  
: 기업 및 직무

**[필기전형]**

- 2과목 (과목별 100점 총 200점, 80문항)

채용분야	시험과목 및 배점 (2과목 200점, 80문항)	
	선택 1과목 (100점, 40문항)	필수 1과목 (100점, 40문항)
사무 (사무, 역무안전)	행정학원론,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법학개론, 통계학개론, 전산학개론, 전자일반 중 택 1	직업기초 능력평가
전기 전자	전기 전기이론	
	신호 전기이론, 전자일반, 통신일반 중 택 1	
	통신 통신일반	
시설 환경	토목 토목일반(궤도일반 포함)	
	건축 건축일반	
	기계설비 기계일반, 전기이론 중 택 1	
차량	기계일반, 전기이론 중 택 1	
승무	기계일반, 전기이론, 전자일반 중 택 1	

- 직업기초능력평가 채용분야별 평가영역

채용분야	직업기초능력평가 평가영역
사무(사무, 역무안전, 보건관리자)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전기전자(전기, 신호, 통신) 시설환경(토목, 건축, 기계설비) 차량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기술능력
승무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인성검사]**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인성 측정(면접시험 참가자료로만 활용)

**[면접전형]**

- 1차면접(집단 대면면접) : 품행, 예의, 전문지식, 발표력 등 평가 (50점 만점)
    - 공기업 직원으로서 갖추어야할 덕목(10점), 일반·전문지식·응용능력 (10점), 창의성, 논리성, 발표력(10점), 사회성, 발전가능성, 리더십(10점), 고객지향성, 화합능력(10점)
  - 2차면접(PT면접) : 지원분야 직무능력과 관련된 지식 등 평가(50점 만점)
    - 분석적 사고(10점), 문제해결 능력(10점), 기획능력(10점), 실무지식 (10점), 위험관리 및 모니터링 능력(10점)
- ※ PT면접은 면접시험 당일 부여되는 지원분야별 주제에 따라 개인별 작성 및 발표  
 → 개인별 작성방법 및 시간, 발표방법 및 시간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안내

## 주요 진출 현황 : NCS

NCS 직무소개



### NCS 관련 직무

-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 → NCS 및 학습모듈 검색 → 분야별 검색
- 14. 건설 → 02. 토목 → 03. 측량·지리정보개발 → 01. 지적
- 14. 건설 → 06. 도시·교통 → 01. 국토·도시계획 → 02. 도시계획
- 14. 건설 → 06. 도시·교통 → 02. 교통계획·설계 → 01. 교통계획

### NCS 직무명 : 도시계획

#### [직무정의]

도시계획이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과 계획참여자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 [능력단위]

- ① 계획타당성검토
- ② 조사분석
- ③ 기본구상
- ④ 도시교통계획
- ⑤ 공원녹지계획
- ⑥ 기반시설계획
- ⑦ 관련 부문별계획
- ⑧ 실행계획
- ⑨ 행정절차이행
- ⑩ 계획총괄관리
- ⑪ 토지이용계획검토
- ⑫ 토지이용계획 실행

### NCS 직무명 : 지적

#### [직무정의]

지적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그 변경사항을 영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유권 보호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이다.

#### [능력단위]

- ① 지적기준점측량
- ② 세부측량
- ③ 지적재조사
- ④ 지적확정
- ⑤ 축척변경
- ⑥ 성과검사
- ⑦ 도지번변경
- ⑧ 토지등록
- ⑨ 지적공부 관리
- ⑩ 토지이동정리
- ⑪ 지적공부 시스템 관리
- ⑫ 국토정보조사

주요 진출 현황  
: NCS

## NCS 직무명 : 교통계획

### [직무정의]

교통계획이란 교통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교통조사분석, 교통수요분석, 교통수요관리분석, 교통운영정책분석, 미래기술 융합 교통계획 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다.

### [능력단위]

- ① 계획수행방법수립 ② 부문별 교통계획 ③ 교통체계진단
- ④ 교통조사분석 ⑤ 교통수요분석 ⑥ 시설규모결정
- ⑦ 교통정책결정 ⑧ 교통계획시행 ⑨ 미래기술 융합 교통계획
- ⑩ 교통수요관리 분석 ⑪ 교통운영정책 분석



## 도시공학과 장○○ - 지적측량 분야



### ■ 합격정보

- 기업명 : LX한국국토정보공사
- 졸업년월 : 2017년 02월
- 입사년월 : 2017년 03월

### ■ 기본 인적사항

- 영어점수 : TOEIC 720점
- 평균학점 : 3.83
- 자격증 : 토목기사, 지적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한국사 1급
- 취업시 연령 : 만 25세
- 인턴십 : 한국국토정보공사 실습 [1개월]
- 해외경험 : 유럽 youth PILOTE 사업관련 학생지도 인솔교사 [1개월]  
네팔 지진피해 복구 봉사활동 [1주]
- 봉사활동 : 교육부 주관 CK-II 사업 '네팔 지진피해 복구 봉사활동' [1주]
- 동아리 : UAV 도시공간 정보 동아리, IUUC 댄스동아리, 느을사랑 봉사 동아리

### ■ 취업 준비 과정

#### 1학년 - 미친 척 해봐라

- 사실 후배님들에게 꼭 말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실컷 놀아라!'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남성분들에게는 군대라는 커다란 산이 존재하고, 여성분들에게는 남학우들이 없는 그 공백기동안 자신의 스펙을 쌓는 것에 매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놀러간다는 것(해외여행, 내일로 등)을 스펙으로 생각하여 제대로 놀지 못하고 보지 못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수능이 끝난 대학교 1학년때는 온전히 저를 위하여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추후 인생 설계에 있어 방향성을 찾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 학점? 저의 1학년 학점은 2.5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밤새 술을 먹는 것은 물론이고, 클럽도 많이 다녔고 평생 안피워보던 담배도 실컷 피워보고 봉사활동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공기업·사기업을 막론하고 결국 사람 사는 곳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막상 취업을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사실 정말 생각 없이 미친 듯이 놀았던 1학년이었습니다. 조언을 하자면, 반드시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 중요한건 챙기겠다. 라는 마음으로 노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롯데시네마 드림이, 술집 서빙, 에어컨 설치, 일용직 건설근로자, 홈

## 취업성공 후기

플러스 주차요원, 주유소 충전원) 을 하며 돈을 모아 용돈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돈을 많이 못 받고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노는데에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1학년 때는 그렇게 보내며, 무엇을 할까. 내가 뭐로 먹고살까 등을 친구들과 같이 공유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후회 없이 실컷 놀아 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2학년 - 정신 차린 척 해봐라

- 저는 남자이고,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1학년을 마친 후 바로 다녀온 군대는 쉬지 않고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정신적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남자분이라면 군대를 반드시 빨리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다고 1학년 중반에 다녀오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여자분이라면 휴학은 반드시 4학년 이후에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휴학은 그리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학년 때 대학생활을 제대로 즐겨보지 못하고 스펙을 위한, 또 스펙을 위해서, 또는 너무 급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겪는 슬럼프 중 하나가 바로 '휴학충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러분!! 1학년 때 충분히 즐겨본 사람들은 휴학을 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우리가 없더라고요. GG (제 주변 대다수의 동기들을 보고 알아낸 결과입니다.) 다시 남자 인생에서, 1학년 때 미친 듯이 놀아보고 군대 2년 동안 자기반성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세상이 아름다웠구나' 를 느껴보신다면, 돌아와서 학업을 이어가는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자분들의 입장에서 1학년 때 즐겁게 놀아보셨다면 그리고 남자 동기들과 다른 친구들이 휴학하여 홀로 있어보셨다면 2학년 때는 밀린 학점을 복구하시면서 학업에 자연스럽게 집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 차린 척 해봐라'라는 뜻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공부요? 전공 공부요! 만약에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으셨다면 1학년 끝나는 그 겨울 방학동안 전과 준비를 하세요.
- 군대를 갔다온 후 저는 4점대의 학점을 유지합니다. 제가 머리가 좋나요? 인천대에 오신 분들, 그 정도 머리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노오력이 부족해~!'하는 말에서 바꿀 수 있는 노력이있고, 바꿀 수 없는 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점은 충분히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 그렇게 놀았던 사람이 2학년 때 높은 성적을 받아 주변 후배, 동기 그리고 선배들에게 좋은 자극을 주었던 것 같고 이 각각의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잘하는 부분에서 도와주고 못하는 부분을 채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요지가 무엇이나면 공부를 진짜 재밌게 하면 공부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동화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술을 많이 먹고 잘 놀러다닌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도 공부 이야기를 하고 놀러 가서도 공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학년 때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췄다면, 2학년 때는 1학년때 얻은 그 '사





람들'과 '전공'에 집중을 했습니다. 저 그렇다고 도서관에만 박혀서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살았지만, 그 외에 남들이 "시험 끝났으니까 놀자" 라고 말하는 그 시간. 그 시즌에 술을 마시면서도 공부를 했고, 엠티나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 3학년 - 준비하시고 쏘세요!

- 성적을 잘 받으라고? 그래서 취업할 때 그 학점을 써먹으라고 2학년 때 전공 공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문에 대해 이해를 하려는 자세로 책을 보다보면 어느덧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이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서히 섭니다. 1학년때 실컷 술마시고 사람들 만나고 놀면서 얻어냈던 희로애락과 동료들. 그리고 그들과 치열하게 공부해본 2학년을 거치면, 사람들에게 각자 성향이 다르고, 맞게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도시건설 공학전공이라, 도시계획, 측량, 교통, 구조설계, 재난, 안전, 콘크리트 배합등 다양한 과목에 관련하여 얹고 넓게 배웠습니다. 그 중 내가 주특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였고, 주전공 하나를 잡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는 '측량' 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매력을 느낀 것은 아닙니다. 2학년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보니까, 측량관련 분야가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자연스레 교수님을 자주 찾아가게 되었고, 교수님을 쫓아다니며 학문에 대한 당신의 열정을 좇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공계생의 필수 아이템 '기사 자격증'에 대한 취득요건이 갖추어지면서, 3학년 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살펴보게 됩니다.

- 저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취업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준비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는데, 정말 많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준비라고 말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공계생의 글쓰기 한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글을 보시면서 느끼는 것이 있지 않나요?

- TOEIC과 같은 어학성적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기사자격증 취득, 해외 봉사, 인턴십경험, 공모전활동, 학생회 활동 등 자신의 경력을 쌓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근데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업을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저는 토익이 720점 인데요. 졸업 여건만 간신히 맞았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잘 되었으니 이 글을 쓰고 있겠죠?. 저는 회화는 재미있는데, 영어 글 읽는 것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드는 공부, 또는 준비는 그만두세요. 멈추세요 당장. 자신이 그 분야에 소질이 없거나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스펙을 찾아보세요.

- 진짜 제일 한심한 사람이, 남들한다고 따라하고, 불안하니까 하고, 그냥 시간 멍하게 버리는 것 같으니까 하고, 그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절박하게 하거나 재미있게 하는 사람들은 쉽게 고득점 나오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 취업성공 후기

돼지 하면서 어영부영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토익이 안 맞으면 HSK해보시고, 그것도 안되면 JPT 따보고, 안되면 뭘하지...” 라는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다만 ‘전공’에 대한 이해가 받쳐주어야 이런 배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저는 그래서 3학년 때 토익 처음본게 710이었어요. 일단 졸업요건은 갖추었으니까, 그만하고 정보처리산업기사를 뺐어요. 왜 뺐냐면, 쉽게 딸 수 있다고 들었고, 제가 준비했던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가산점 자격요건이 있길래, 어짜피 4학년 때는 기사공부해야되니까, 3학년 때 미리 하나 따놓자 라는 생각으로 뺐어요.

그렇게 역시 3학년까지는 술을 먹고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고, 더불어 학생회 활동과 봉사동아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아, 근데 여기서 제가 말만 번지르르하지 실제로는 챙길거 다 챙기고 다닌거 아니냐 말하는 분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1학년 때 PC방도 자주가고 했지만, 2 3 학년 동안 당구장 이랑 게임방 출입한 것은 손에 꼽습니다. 차라리 저는 사람들을 만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술마시는 시간을 자주 가졌어요. 그게 남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 결정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고, 제가 빠르시간 내에 취업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구장, PC방은 정말 정말 시간낭비예요. 1학년 때 충분히 미친 듯이 즐기라는 말이 이래서 나옵니다. 저는 1학년때 놀아 보니까 저런게 질리더라구요. 재미가 없어요. 사람 만나고 공부하고 하는게 재미있으니까 다른 것이 별로 와닿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더욱 가속을 내어 취업준비를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 3학년 끝나는 순간, 우리과 졸업 학점은 140학점인데, 그 중 120학점을 채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세어보지도 않고 4학년때 한번 확인해야지 하면서 신경 안 쓰고 듣고 싶은거 다 듣고, 그 대신 꾸역꾸역 다 들었습니다. 2학년 때 전공 공부를 통해 준비가 되었다면 3학년 때는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무엇을 할까를 결정하고(이게 주전공입니다.) 쌓여있는 제반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곳에 올인할 수 있는(이게 쏘라는 것입니다.) 여건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건축이나 토목, 환경이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시기 때 전공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만 4학년 때 기사 공부가 쉽습니다.

### 4학년 - 놓치지 말아라

- 여러분, 준비가 되어있어야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말, 아직 와닿지 않으시죠? 그 것을 2,3학년 때 못 느꼈으면 4학년 때 피눈물 흘리십니다. 이제 이 시기에는 동기들이 한두명씩 취업하기 시작합니다. 멘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사자격증 하나를 취득해야하는데 불필요하게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소모합니다.(아, 저는 잘난척하는 것은 아니고. 토익이나 기사자격증 관련 학원을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스펙을 쌓기 위한 공부를 하지 마

## 취업성공 후기

세요.) 3월에 1차 기사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탈락할 수 있습니다. 총 4차의 시험 중 한 기사 과목은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기사 하나만 취득하실 것 아니잖아요? 자부하건데 기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주먹구구식이 아닌 기사간의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토목기사나 건축기사를 취득한다면, 길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어느 쪽과 연계를 해도 말이 멋있어집니다.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합니다. 취업시즌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준비했다 라고 말을 할 때 멋있게 나와야 합니다. 이것 저것 해본 척 하는 사람들, 절대 뽑지 않습니다. 공기업이 NCS가 들어오고 나서 이게 심해진 것 같아요.)

- 준비가 되어있어야 놓치지 않습니다. 3월 기사 1차시험때 취득하고, 5월 2차시험때 취득을 해서 기사자격증 2개를 보유한 순간, 자신의 가치는 달라져있고 자신감도 다릅니다. 필사적으로 공부하세요. 정말 이 순간 놓치면 망한다라는 절박함으로 덤벼세요. 2개를 따는 순간 (사실 많으면 좋지만, 2개면 충분합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또 후반기에 기사자격증취득에 힘을 쏟지 않아도 되므로, 다양한 취업박람회나 미진했던 어학성적, 졸업논문 등에 대해 일처리가 쉬워질 것입니다.
- 졸업도 일입니다. 이것 저것 신경써야될 것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2,3학년때 전공공부를 했고, 미친 듯이 학점을 이수한 것이 효과를 보았다 생각합니다. 4학년 2학기 때는 10학점 이하로 들으면서, 긴장되었지만 여유로운 척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들 급한 상황이라 서로 누구를 돕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1,2학년 때 많이 놀아야 4학년 때 한눈을 안팔게 됩니다. 아? 맞다, 저 여자친구 2학년 때부터 만나 계속 사귀고 있습니다. 이성친구 만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25전쟁 때 도 애는 낳았잖아요, 즉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전공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그것만 된다면, 3학년이나 4학년 때 잠시 방향을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바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 후기



### [주요평가요소]

- 직무 적합성 : 수강교과목, 자격증, 직무 관련 교육 및 경험(일경험) 등
- 조직 적합성 : 인성 및 태도, 기업 인재상 및 핵심가치 적합여부, 미래비전 등
- 직무역량이 중요시되는만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역량, 그 역량의 근거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필수

## ☞ 서류 후기 및 작성 Tip

저는 주전공을 측량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취업시즌이 다가오면서 관련 직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3학년 초에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LX 외에도 공간정보산업협회, 각종 측량엔지니어링 회사, 공간지적분야 회사 몇 군데를 알아 보았고(그래봤자 5개도 되지 않습니다.) 전력으로 집중했습니다. 떨어지면 어찌지하는 불안감 속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전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긴 후여서 기분 좋은 긴장감이 끝까지 유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LX 국토정보공사에 대하여 심도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NCS기반의 취업방식이 보편화되면서 LX는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기 위한 역량기반 지원서를 받았습니니다. 사실 조금 억울했습니다. 졸업하려고 보니 학점도 좋고, 취업하는 나이도 어린편인데(저 92년생입니다. 후학을 한 번도 안 한 남자들 중에 가장 빠른 것이지요.) 이것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사진, 어학성적, 나이, 학교, 성별, 학점 모든 것을 쓸 수 없었습니다. 역량기반 지원서는 오직 제 이름과 자격증여부, 전공 관련 심화교육 여부, 자기소개서 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NCS(국가직무능력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말 그대로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국가가 제시한 직무가 무엇인지 알아야하고, 그 능력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표준 이상인지, 좀 더 나은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지원 양식이었습니다. 서류작성을 함에 있어서 아래에 몇 가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진실성

- 과장은 하되, 거짓은 섞지 마라. 이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공에 대한 이해와 내가 그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약간의 과장은 필요합니다. 흥미를 끌어야합니다. 다만, 거짓말은 쓰지 마세요. 대학교 학사 수준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면접관과 인사담당자는 엄청 대단한 사람을 뽑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성있고 투박하더라도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고 충성하는 사람을 뽑으려합니다.

### • 분석

- 저는 LX 홈페이지를 3~4시간에 걸쳐 뜯어보았습니다. 회사에 대한 이해, 인재상, 비전, 매출액, 근무여건, 하는 일,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사장의 이름은 무엇인지, 관련 부서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홍보단이 있는지, 주로 하는 봉사활동은 무엇인지 치밀하게 알아봤습니다. 회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다보면, 정말 더 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작성하는 자기소개서에 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성도 배가 될 것입니다. 애절해질 것입니다. 분석을 한다는 것은 뭔가 치사하고 약았다

## 취업성공 후기

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가고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3~4시간동안 눈을 못 떴 것입니다.

### • 직무지식

- 혹여나 전공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신 분은 답안지를 보시면 됩니다. NCS 평가가 도입된 후 NCS 공식 사이트에서는 모든 직종에 관련된 업무소개와 주전공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해 놓은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건설분야에 측량관련 세부 직종인 '지적'분야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어야하고, 그것을 한 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에서 무엇을 할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좋은 역량기반지원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후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최종면접에 가서도 이 지원서에 대해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적냐고요? 제가 후배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기업에 가기 싫으세요? 이 기업 떨어지고 싶으세요? 이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의 징표이자 '제갈량의 출사표'입니다. 이정도도 알아보지 않고 회사에 들어간다면 당신은 뻔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사담당자가 뽑아주고 싶겠습니까? 자기 최면도 좋습니다. 진짜 이 기업에 가고 싶다고 수없이 되뇌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 [주요평가요소]

- 많은 기업들이 자체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면서 서류전형 이후 인적성의 비중이 중요해지고 있음
- 사기업 : 수리논리, 추리 등의 영역을 기반으로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논리력과 사고능력을 평가(KGSAT 기준)
- 공기업 : NCS 직업기초능력(10개 영역) 평가 기반으로 시험이 구성되며, 공기업마다 채택하는 영역의 수는 다르지만, 주로 6개 영역(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 조직이해&정보능력)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음

## ∴ 인적성 후기 및 준비 과정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LX는 역량기반지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모두에게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필기 시험에는 인적성검사, NCS시험, 그리고 전공시험.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인적성검사는 말그대로 인적성만 판단하여 해당 기업에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라 점수비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찍으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150개의 단답 문항을 30분안에 대답해야 하는 특성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람이 거짓을 말하는지, 진정성이 없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예를들어 "나는 타인과의 교류에 있어서 적극적인 편이다." 라는 문항과 "나는 활발한 편이다." 는 유사한 의미를 띄고 있는데, 하나는 yes를, 하나는 no를 대답하였다면, 또한 이러한 유사문항에 대해 자꾸 yes와 no가 달라진다면 판독기(사람이 하는거 아닙니다. OMR 용지로 수능보듯이 전산채점 합니다.) 는 그냥 NCS와 전공시험 득점여하를 막론하고 당신을 탈락시켜게 되는 원리입니다. 긴장을 많이해서, 혹은 너무 잘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이 작용하여 자신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연막'을 치게 되면 안됩니다. 무조건 진실하게, 빠르게 대답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적성 준비는 따로 사실 필요는 없고, 다만 NCS서적같은 책 몇권 보시면 '아 이런문제들이 나오는데구나'라고 판단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NCS와 전공시험이 3:7이나, 4:6이나, 4.5:5.5 비율이냐를 놓고 논쟁이 있었으나, 회차가 지나면서 NCS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재수이상의 오

## 취업성공 후기



### [주요평가요소]

- 보편적으로 기업은 2단계 면접으로 진행
  - 1차 면접 : 직무면접, 실무진 면접
  - 2차 면접 : 인성면접, 임원면접
- 기업/직무에 따라 PT면접, 토론 면접, 롤플레이, 영어면접 등을 진행
- BE(경험)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경험을 토대로 꼼꼼히 검증하고 보유 역량을 판단하는 면접유형이 확대, 자신의 행동을 중심으로 구체적 과정과 성과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

랜 준비자라면 느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전공시험만 잘보면 '강패' 다. 라는 말이 LX수험생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전공 잘 봐놓으면 면접은 그냥 인사만 잘하면 붙는다 라는 말과 증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험을 잘 못봤습니다. NCS는 평균이상이었지만, 지적측량, 통계학, 지적학, 지적관련법규로 이루어진 전공시험은 55, 65, 70, 60점을 맞았습니다. 어느정도 느낌이 오시나요? 원래라면 면접에 갈 수 없는 점수였겠지만, NCS가 62점으로 (평균 예상 57점) 간신히 턱걸이로 면접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실 준비한 시간이 너무나 짧기도 하였고, 전공시험문제의 난이도도 엄청나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기서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진정성과 전공에 대한 이해를 미리 해놓았기 때문에 문턱에서 걸리게끔이라도 들어왔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역량기반지원서를 내면 나의 수험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이 번호는 최종면접 후 입사 전까지 쪽 나의 번호가 됩니다. 이후 전공 시험을 본 후 2주 정도 후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면접기회를 부여받습니다. 면접을 붙으면, 교육연수를 받은 후 인턴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무엇이라면, 망했다는 느낌이 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 것. 어려웠다. 쉬웠다라는 남들이 정해놓은 객관적인 지표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말 것, 시험 잘봤다고 좋아하지도 말고 시험 못봤다고 낙담하지도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 면접 후기 및 준비 과정

네, 위에 서술했던 것과 같이 저는 거의 꼴찌로 전공시험에 턱걸이로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전에 LX에 입사했던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공시험의 비중이 면접시험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말을 익히 들었기에, 또한 제가 거의 꼴찌였기에, 내가 이 것을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하루 종일 잠기도 했습니다. LX는 제가 붙었으니까 감히 판단해보건데 전공시험:NCS:면접의 비중이 4:3:3정도 즉, 전공시험은 갈수록 통과 목적을 두고 직무적성평가(NCS)와 그것을 기반으로한 역량면접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위에서 장황하게까지 써놓은 목표를 잡고 일관성있게 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두시간정도 저 혼자 상상으로 면접장에 앉아있는 상황, 창문에 보이는 풍경, 면접관의 얼굴, 옆에 있는 지원자는 어떠한 대답을 할 것인지, 눈을 감고 그려봤습니다. 또한, 제가 절박하게 인터넷에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손을 잡아준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냥 카페를 통해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이었는데 제가 무작정 만나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면접까지 올라갔다가 탈락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혹은, 잘되어서 따뜻한 마음을 써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혼란스러웠던 저에게 상세하게 면접장의 분위기와 질문 유형을 알려주었고 면접 4일 전에 만난 그 분 덕분에 제가 이 글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음을 예쁘게 써라' 입니다. 아, 그래서 그 분이 어떻게 되었나구요? LX는 떨어졌지만 지적직

공무원에 합격하셨습니다. 면접장에 가시는 그 순간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추후 입사 동기가 될 수도, 당신의 인생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만나게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면접은 면접관 4명과 지원자 4명이 마주보고 진행되는 다대다 면접 방식을 띄고 있습니다. 토론면접은 없습니다. 질문은 크게 자기소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면접, 역할면접, 끝인사로 구성이 됩니다. 4명 전체에게 주어진 시간은 입장, 퇴장을 제외하고 약 26분정도이며 이것은 명당 6분 30초 정도입니다.

같이 들어가는 동료 3명을 믿으세요. 그리고 대기하는 면접 대기실부터 친해지세요. 이게 팀워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쟁을 하더라도 다른 시간, 다른 팀과 하세요. 같이 들어가는 4명은 한 배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인사하시고 면접장 분위기를 4명에서 압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세요. 옆사람이 대답을 잘 못하면 제가 눈에 잘 될 것 같다고요? 네.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당신만요. 옆사람의 대답이 흔들리면 본인 역시 준비한 것을 잊게됩니다. 또, 자기가 보여주고자 한 것을 다 보여주지 못하거나 같이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면접관의 질문이 다음 사람에게 더욱 짜증스러운 말투로 더 매서워집니다. 이제 대충 이해하셨죠? 이타적인 마음은 필수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기소개는 너무 준비된 말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도 수없이 많은 센스 있어 '보이는' 인사법이 많이 나옵니다. 다 진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면접관들이 지루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실성 있게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 중요합니다. (저는 술 잘마시고, 노래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인사를 듣고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공기업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생각한 것보다 다들 깐깐하시더라고 들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본 것입니다. 그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면접에서 편해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구요. 다만 저런 '도전'적인 말을 한 후에는 반드시 '커버'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안녕하십니까! 000지원자입니다. 저는 술 잘 마십니다. 그리고 노래 잘합니다. 사람 잘 챙깁니다. 저의 긍정적이고 활발한 에너지를 이번 면접에서도, 나중에 입사해서도 마음껏 쏟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구구절절 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길어진다 해서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극도로 떨리고 긴장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생각한 기승전결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두세요.) 나름 건방져 보일수도 있지만, 아슬아슬 센스있게, 그리고 명료하게, 짧게 저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게, 실제적으로 면접관님들에게 효과가 작용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먹혔다고 생각하고 추후의 질문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자신감이 반절이상입니다 이것은 자부합니다.)

인사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상황면접에 들어갔습니다. 면접관님들을 만나기 전, 면접장 앞에서 우리 4인은 대기를 하며 큐카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 취업성공 후기

는 상황이 적혀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제가 받은 상황은 “너는 일처리를 배운지 얼마안된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이다. 아침 00 시 개발프로젝트에 있어서 측량업무가 밀려들어 국토정보공사의 하루 일처리량이 늘어난 상황이다. 일이 밀리다보니 민원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 너의 사수 김대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다. 김 대리가 너희 지적측량팀의 주 업무자인데, 너는 어떻게 김대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였습니다. 수 없이 생각해보고 혼자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지만, 역시 질문이 막상 들어오니, 그리고 이제 몇분 뒤면 면접장에 들어갈텐데... 생각을 하니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명상연습이 필요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연습을 해야합니다.) 수 없는 질문 유형과 다양한 답변에 대한 생각? 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3개정도의 “스토리”를 준비한 상태에서, 어떠한 질문이 들어와도 그 3개중 하나에 끼워 맞추어 나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 “스토리”에는, NCS로 확인하고, 실제로 현장실습을 다녀보고, 어른을 대하는 태도와, 나의 성격과, 가장 중요한 공사의 ‘인재상’을 넣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 모든 것을 다 말 할 수 있지는 못하겠지만, 당연히 못하겠지만 그래도 수 없이 머릿속으로 되뇌이다 보는 연습을 해보니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듯한 준비’가 면접관님들에게 더욱 솔직하고 진정성있게 저를 보여준 듯 합니다. 4인중 2명(저 포함)은 저 질문을, 그리고 나머지 2분은 다른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롯이 저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따라서 4명다 똑같은 대답을 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고, 하실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혹시나 내가 할 말 다하면 내 뒷사람은 어떻게하지 라는 생각을 나름 했는데, 그것 까지 면접관들께서 고려해주신 것 같아서 따뜻함?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후 심층적으로 역량면접을 진행하는데, 그때의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면접만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보여주고, 상황면접이 끝나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주고 받습니다.)

“살아오면서 남을 배려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본적이 있는가?” 이것은 이제 충분히 예상도 가능하고, 준비한 만큼 잘 대답을 할 수 있는 무난한 질문이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꼬리질문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되기도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라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꼬리질문은 많은 것이 좋지 않다는 저의 판단입니다.

“우리 공사는 일만 잘해서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해 주었으면 한다. 일할 때의 나와, 평소의 나는 어떻게 다른지 표현 해달라.” 이 질문이 정말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해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 이거를 어떻게 대답해야하지...’ 하며 패닉이 다들 오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 당연히 “일을 하는데에 있어서나 사람을 상대하는 평소에 삶에 있어서 변함이 없고, 성실하고, 세심하게 일을 처리한다.” 라고 대답





한다면 베스트겠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저의 단점을 말했습니다.(근데 이것도 위에 서술해 놓은 것처럼, BUT을 활용해서 커버를 쳐야합니다.) 일처리를 좀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고, 출석대는 편이다. 근데 일을 몰아서 한다는 것은 평소에 일을 끝내기전에 정말 다각도로 사고를 해보고 분석해보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다. 출석대는 것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다. 그래서 평소 어른들에게 많이 혼나면서 컸다. 이제는 명상을 하면서 나 자신을 계속 다스리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있고, 나는 발전중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선'을 넘지 않는 나를 보며, 굉장히 인간적이고, 일 할때에는 준비가 철저하다고 말한다. 이것이 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저게 말만 번지르르하지 사실은 가끔 실수하는 덜렁이에 일몰아서 하게 되어서 일하는데에 뒷심 약한놈이라는 것을 말해주었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부인할 수 없는 나. 저게 진짜 "나" 이니까 그냥 말했습니다. 포장은 적당한, 그리고 실속있게 나를 보여주는데에 충실했고,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 취업경력개발원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 사례**

먼저 저는 도시과학대학 도시환경공학부의 도시건설공학전공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강성남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알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게 된 계기는 먼저 취업한 친구의 추천으로 면접 코칭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소개서 코칭도 해주시지만 저는 면접코칭만 받은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면접, 막막하잖아요. 머리는 어떻게 해야하지? 정장은 무슨 색을 입는 것이 나올까? 구두는? 벨트는? 넥타이는...? 또한, 어떤 형식으로 면접이 진행되는 것일까? 대체 면접이라는 것은 공부할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함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 실제 면접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2차 합격자들(전공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은 지역별로 모의면접스터디를 만들어 운영을 하며 서로 질문을 내며 웃도 차려입고 코칭을 해주며 서로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러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서로 만났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 서로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이 들지 않았었습니다.(아, 물론 좋은 마음으로 만난 스터디의 의미를 훼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스터디하는 것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불안감에 휩싸였고 그 것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분 이 바로 강성남 선생님이었습니다. 다방면에 있는 정보를 많이 아시는 분이었고, 정장 상의에 있는 주머니를 말아 넣으라는 등 실제로 하나라도 더 잘보여야 하는 면접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코칭해주셨습니다. 함께 면접장에 들어와있는 기분으로 같이 준비를 했고, 특히 이 말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OO야, 너는 면접장에 들어가서 진짜 일부러 망치려하지 않는다면 불을거야. 끝까지 해보자." 외적인 것과 내적인 마음가짐

## 취업성공 후기

을 다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았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하는 것을 명료하게 짚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가지를 준비할 때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게끔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펙을 위한 스펙을 쌓지 말고, 나에게 필요한, 또 내가 가질 직업에 필요한 것들을 취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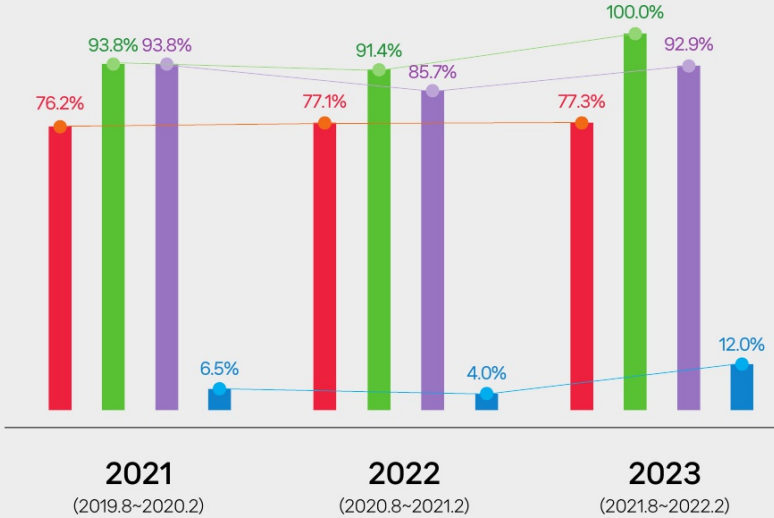
세상에는, 그리고 취업시장에는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력여하에 따라 바뀌는 부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노력을 해본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운도 실력이라는 말 우습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성있게 한 곳을 준비하고 열정을 쏟음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이번 취업에 있어서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면 물론 좋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항상 그려보세요. 내가 밖에 나가서 있는 것을 싫어하는데 외근과 출장이 많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한 삶이 될까요? 자신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지마세요. 그리고 100퍼센트 자신을 믿어보세요. 불안한 순간, 순간들이 기본 좋은 긴장감으로 바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인천대학교 들어오실 머리와 재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각자의 길에서 멋지게 커서 추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 취업 및 진학현황

■ 취업률 ■ 1차 유지취업률 ■ 4차 유지취업률 ■ 진학률



연도	졸업자	취업대상자	취업자	진학자	취업률	유지취업률		진학률
						1차	4차	
2021	46명	42명	32명	3명	76.2%	93.8%	93.8%	6.5%
2022	50명	48명	37명	2명	77.1%	91.4%	85.7%	4.0%
2023	25명	22명	17명	3명	77.3%	100.0%	92.9%	12.0%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KEDI) 12. 31 공시취업률 기준 (대학 알리미 [www.academyinfo.go.kr](http://www.academyinfo.go.kr) 참조)
- 기준 : 3개년 12월 31일자 공시 취업률 기준 (2021년, 2022년, 2023년)
- 취업률 산출방식 (취업자 / 취업대상자) × 100
- 진학률 산출방식 (진학자 / 졸업자) × 100

